

가정과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사실업계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 탐색 -

장명희\*<sup>1)</su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Fundamental research to investigate methods of vocational competency  
enforcement in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revision of the current NCS based vocational highschool education curriculum and  
investigation in change of direction in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

Jang Myung Hee\*<sup>1)</sup>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bstract**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o enforce vocational competencies. It was carried out in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recent econom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its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the vocational training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t seeks change in directio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based on revisions in the educational system. The method of study was mostly through reference and data analysis, professional advisory and public hearing.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environmental change factors in relation to vocational training have been integrated to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gender related economic activities, generation composi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innovation of living technique. These change factors are forecasting innovations in related industries, lifestyle changes, demand for manpower and changes in capabilities required for each specific profession.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home economics education training, vocational home educations high school accounts for 9.4% of the total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here 8 standard departments are

---

1) 교신저자: Jang Myung Hee,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Tel: 044-415-5113, Fax: 044-415-3803, E-mail: mhjang@krivet.re.kr

2) 이 연구는 2013년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specialized in and characterized into 137 different department names. Despite differences among departments, overall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were measured 44.7%, which rates above the entrance rate of 41.9%. These numbers show great change since 2010(overall employment rate 16.9%, entrance rate 75.2%), a meaningful outcome resulting from changes in policy from the previous employment-centered education system.

Third, NCS based on high school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system revision and investigations in change of direction in vocational home economic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ckground for revision from the development of NCS. It also provides proposals for restructuring division of current classification and departm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propositions for further future research.

**Key words:** 가정계 직업교육(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직업역량(vocational competencies), 교육과정 개정(curriculum revision),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계열 재구조화(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노동 수급 불일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직업교육 개선과 고등교육 등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의 과도한 강조 문제 해결 등 사회·경제적 변화 환경에서 국가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2).

우리나라는 학벌중심 사회 구조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률의 증가, 국가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국가,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교육의 내적 개혁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통해 학교교육과 기업, 사회를 연계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Jang et al., 2012).

지난 정부에서는 고교 단계의 취업 중심 직업교육을 강조하여 先취업-後진학 병행 경로를 구축하는 기능의 최적

화(functional optimizing)와 소규모 정예화를 목표로 하는 규모의 최적화(size optimizing)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Park et al., 2010). 이에 따라 고교 직업교육은 지난 정부의 고졸 취업 및 후진학 활성화 정책으로 2008년까지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았던 교육에서 취업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시켰고 ‘고졸 취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고졸 취업 문화 정책에 대하여 수요자인 기업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경우에도 선취업-후진학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Jang, Park, & Choi, 2013).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에 요구되는 기업의 기대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졸 인력의 현장직무 수행역량이 이러한 산업체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일터 기반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고교 직업교육은 학교 기반 직업교육의 형태로 전개되어 산업 현장과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 준비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입학한 학과의 산업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및 준비 역량도 제한적이라고 본다(Jang et al., 2014c).

또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정보화·국제화·세계화로

요약되는 사회적인 변화, 이에 따른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의 변화 및 유연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의 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직업세계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하는 역량과 교육과정의 변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Jung et al., 2010; Jung et al., 2013; Jang et al., 2011; Jang et al., 2012). 과도한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을 강조하는 문제 개선이나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2차 교육단계부터 노동시장 및 일의 세계, 진로·직업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학교급간, 교과 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최근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산업현장 및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을 개발하고,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Interagency, 2013). 정책 목적은 학교 교육 내용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인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알기 만하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체제를 NCS가 고교 직업교육 교육 과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된다(Jang et al., 2014c).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래의 일과 가정생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역량중심교육으로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교육의 내적 외적 변화는 가정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 교과와 통합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가정교육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역량의 함양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와 실천을 요청받고 있다.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정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왔으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가정교육 영역에 기반 한 직업교육을 계속 발전

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환경 변화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탐색한다.

둘째,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가정계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을 탐색한다.

## 3. 연구 방법

###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문서, 국내외의 가정계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정 관련 선행 연구, 가정계 직업교육 관련 산업 및 직업관련 자료 및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자료 및 문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 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이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Jang et al., 2014c)는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

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계열 재구조화 및 인력 양성안, 변화 방향 제시를 위한 타당성은 학계와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 받았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공청회(2014년 7월 11일, 서울성동공업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II. 관련 문헌 고찰

###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 동향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실업계고(현 특성화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련의 실행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2005년에 마련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는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지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지난 정부에서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선취업-후진학’을 핵심으로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Jang et al., 2014c).

현 정부 또한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과 교육훈련과정·자격검정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교육훈련 수요자(기업·학생)의 불만 및 자격의 통용성 저하 문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로 인한 능력개발 중복투자 문제, 다양한 학습경험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의 미흡 문제(Jang et al., 2010)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사업의 목적은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Ju et al., 2010).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자격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일과 학습이 연계된 제도 구축의 출발점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에 따른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 및 일-자격-교육훈련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자격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교육-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CS 학습모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 지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숙고해야 한다. 넷째, 일-학습 연계를 위해 고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어떤 수준으로 선정·운영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고교 가정계 직업교육과정 변천과 교육과정의 개선 요구

가정과교육과 관련한 직업교육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9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Table 1>과 같이 명칭과 설치학과, 전문교과 편제, 시간 배당 기준을 달리하여 왔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계열) 명칭은 제1~2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계 고등학교로, 제3~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사·실업계 고등학교로, 제6차~2009 개정 교육과정

Table 1. Change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vocational high schools educational curriculum

Categories	Designation	Installation Department	Professional curriculum formation	The criteria of Units with dividend	Note
[제1차] 문교부령 제76호 (1958.6.5.)	가정계 고등학교	·가정과 ·간호조산과 ·보건(여자)과 ·가정 미술과 ·미용과 ·재봉과	·총 전문 교과 수: 55개 ·학과별 필수·선택과목을 제시함	·과목별로 총 시간 수를 표시	
[제2차] 문교부령 제122호 (1963.2.15.)	가정계 고등학교	·가정과	·전문필수: 8개 과목 ·전문선택: 7개 과목	·전문필수: 68-116단위 ·전문선택: 86-122단위, 총 204-222단위	·최초로 단위제 채택
[제3차] 문교부령 제286호 (1971.8.14.)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가정과 ·식품 조리과 ·의류과 ·보육과	·학과별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제시 ·학과별 ‘종합실습’ 과목 신설	·전문필수: 60-70단위 ·전문선택: 32-94단위 총 204-222단위	·계열 명칭을 가사·실업계로 변경
[제4차]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12.31.)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가정과 ·보육과 ·의류과 ·조리과	·전문필수: 학과별 6개 과목씩 편제 ·전문선택: 24개 과목으로 과별 구분 없이 제시	·전문필수: 24-42단위 ·전문선택: 58-98단위 총 192-204단위	·식품조리과를 조리과로 명칭 변경 ·총 이수단위 축소
[제5차]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3.31.)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유아 교육과 ·자수과 ·의상과 ·조리과 ·관광과	·전문필수: 학과별 5개 과목씩 편제 ·전문선택: 41개 과목으로 과별 구분 없이 제시	·전문필수: 38-64단위 ·전문선택: 44-84단위 총 204-216단위	·가정과 폐지 ·자수과, 관광과 신설 ·학과 명칭 변경 (보육과→유아교육과, 의류과→의상과)
[제6차]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92.10.30.)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기타학과	·계열에 관계없이 이수 가능하게 제시 ·2개 전문 필수과목: (가사·실업 실습, 전자계산 일반) ·22개 전문 과목 설치: 학과별 선택 구분 없이 제시	·전문 과목: 82단위 이상 (각 과목별 이수12단위 이하)	·학과별 필수 과목과 실습과목 단위는 시·도가 정함 ·실내디자인과 신설 ·노인복지 등 5개 과목 신설
[제7차]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노인·복지 간호과 ·미용과 ·기타학과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82 단위 이상 자율 이수 ·2개의 전문 필수 과목 제시: 인간발달과 컴퓨터 일반 ·31개의 전문과목 설치: 학과별 선택 구분 없게 제시	·전문 과목 총 이수 단위: 82단위 이상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함)	·노인·복지간호과, 미용과 신설 ·22개의 전문 과목에서 32개 전문 과목으로 확장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07-79호 (2007. 2. 28)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80 단위 이상 자율 이수 ·2개의 전문 필수 과목 제시: 인간발달과 컴퓨터 일반 ·36개의 전문과목 설치: 학과별 선택 구분 없이 제시	·전문 과목 총 이수 단위: 80단위 이상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함)	·자수과 통폐합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분리 신설 ·8개 과목 신설 ·5개 과목 명칭 변경 ·1개 과목: 계열 이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호 (2011. 08.)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보육과 ·의상과 ·조리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80 단위 이상 자율 이수 ·2개의 전문 필수 과목 제시: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 이해 ·37개의 전문과목 설치: 학과별 선택 구분 없게 제시	·전문 과목 총 이수 단위: 80단위 이상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함)	·자격과 연계해 학과명칭 변경 ·계열필수 1과목 신설 ·6개 과목 명칭 변경, 5개 과목 전면 개정 32개 과목 부분 개정

Source: Jang et al.(2011). Investigations of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reconstruction by researcher.

기에는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로 명명되어 왔다. 기준학과는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 설치되어 온 가정과를 제외하면 조리, 의류(재봉), 보건·간호, 보육 등의 기준학과가 설치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설치된 관광과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제1차 교육과정기의 가정 미술과는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실내 디자인과로 미용과, 간호과는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다시 개설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신설 근거를 가진 복지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시대적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초기의 교육과정은 편성·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시 없이 학교별로 관례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계열 특성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중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계열에 관계없이 설치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습 과목의 이수 단위와 학과별 필수 과목을 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청이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가사·실업 실습을 필수로 하여 학과 관련 영역만 선택·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지도 내용 재구성, 산업체와의 연계, 현장 실습 등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은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설치학과와 전문교과 편제, 시간 배당 기준을 넘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수시개정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두 번째 개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가사·실업계열을 ‘생활서비스 산업계열’로 명명하고 의식주 중심의 가정생활 산업과 보건·복지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산업 분야로의 분리, 신설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열을 분리, 신설할 경우 자격제도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기반으로 관련 전공과간의 계열필수 및 핵심과목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현행의 계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Jang et al., 2011).

한편 중등직업교육 교육과정의 국제 동향을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스웨덴의 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학과 현황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Jang et al., 2011).

첫째,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직업교육과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①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틀 관점에서 개방화(고등교육과의 연계: 수직이동), 유연화(일반계 프로그램↔직업계 프로그램을)를 추진하고 있고, ② 직업 세계와 학문의 세계를 개인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 면에서는 ① 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② 시대적, 지역 특성적 요구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극적으로도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성하고 교육과정 전공 계열(과정)은 농생명, 상업정보, 공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의 5개로 구분된 것에 비해 일본과 핀란드는 8개로 구분되어 전공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13개의 프로그램(과정)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직업자격과 연계한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정 계열에 해당하는 계열 구성은 건강, 보건, 복지 및 대인 서비스 등 일자리 중심의 전공계열 개설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2> 참조).

셋째, 교육과정 내용 면에서는 ① 이수 교육과정에 대부분 인문 교과군을 공통 핵심과목이나 핵심필수 교과로 포함시키고 있고, ②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취득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 평가기준 및 졸업 면에서는 대체로 정해진 학제보다는 학점 이수제를 통해 학생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고 졸업 및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의 질 관리 면에서는 국가차원의 자격증 시험이나 합격·불합격의 등급 부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을 통한 인문교과와 기술중심 교육의 조화를 통해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기초역량 강화와 생애 학습능력 함양 등의 반영을 위한 방안 모색과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인정, 교육과정과 평가의 일치, 수행능력 중심의 평가, 통용 가능한 자격과 교육과정의 연계

Table 2. Current status of foreign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s related majors

Category	USA	Japan	England	Finland	Sweden
전공 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li> <li>·비즈니스</li> <li>·마케팅</li> <li>·테크놀로지 및 커뮤니케이션</li> <li>·무역 및 산업</li> <li>·헬스 케어</li> <li>·보육 및 교육</li> <li>·보호 서비스</li> <li>·음식서비스 및 환대</li> <li>·개인 및 기타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li> <li>·공업</li> <li>·상업</li> <li>·수산</li> <li>·가정(가정, 피복, 보육, 기타)</li> <li>·간호(간호, 기타)</li> <li>·복지(복지, 기타)</li> <li>·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경영 및 재정</li> <li>·건설 및 환경구축</li> <li>·창의성 및 미디어</li> <li>·공학</li> <li>·환경 및 토지기반학습</li> <li>·헤어 및 뷰티학습</li> <li>·서비스업</li> <li>·정보기술</li> <li>·제조 및 제품디자인</li> <li>·공공 서비스</li> <li>·소매 비즈니스</li> <li>·사회 ·건강 및 발달</li> <li>·스포츠 및 여가</li> <li>·여행 및 관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 및 교육</li> <li>·문화</li> <li>·사회과학 및 경제·행정</li> <li>·기술 및 커뮤니케이션</li> <li>·운송</li> <li>·자연과학, 천연자원 및 환경</li> <li>·사회복지 및 건강·스포츠</li> <li>·관광 및 요식업·가정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li> <li>·운송</li> <li>·경영</li> <li>·수공예</li> <li>·호텔과 레스토랑</li> <li>·공업</li> <li>·식품</li> <li>·미디어</li> <li>·천연자원의 이용</li> <li>·아동과 레크리에이션</li> <li>·에너지</li> <li>·건강관리</li> <li>·전기</li> </ul>

Source: Jang, Kim, Park, & Choi (2010). Investigations of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실무 현장과의 적합성 제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우리 나라 가사·실업계별 교육과정 분석과 외국의 가정계 교육과정 관련 분석, 선행 교육과정 연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가사·실업계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한계는 산업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열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학과의 설정, 학문분류에 의한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족,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방향제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평가체계 등이 논의되어 왔다(Lee et al., 2012).

제6차 교육과정기 이후 가사·실업계 교육과정 개정시기에는 관련 직무분석 자료의 활용과 개선 요구 조사 등을 수행해 왔다(Yoon et al., 1992; Kim et al., 1997; Jang et al., 2007; Jang et al., 2011).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가사·실업계별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 결과, 산업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의 개설, 국가·사회적 산

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직업교육의 대처, 다양화·특성화되는 직업구조에 대한 중등교육에서의 적응, 기준학과 개편 및 신설에서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대한 고려, 직업기초능력 교과 신설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자 개선 요구 사항으로 강조되었다(Jang et al., 2011). 특히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이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및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통 사항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현장 실무 경험과 숙련된 전문교과 교사의 확보를 위한 자격 및 연수 제도 개선,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III. 연구 결과

#### 1.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산업 및 직업 환경 변화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산업 및 직업은 표준산업 분류, 고용직업 분류 등에서 여러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계열 재구조화, 가사·실업계별의 산업 동향 분석 등에서 생활 산업, 생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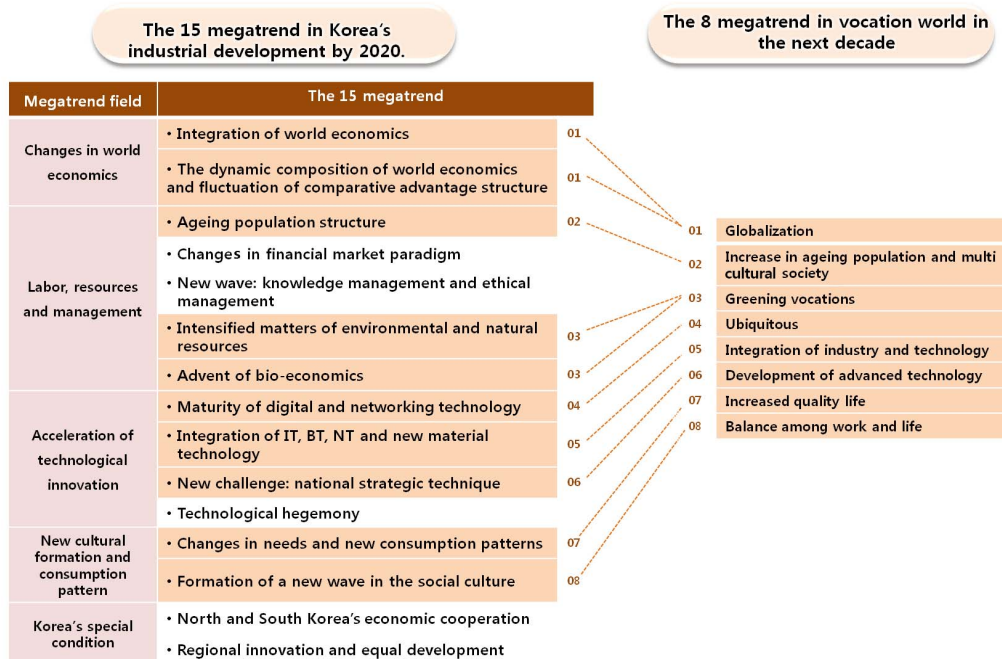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명칭은 일본의 가정계 직업교육과 이를 둘러싼 산업에 대한 접근에서 ‘생활 산업’을 정의하고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文部科學省, 2011)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가사·실업계열에서 생활서비스 산업으로 분석·정의하여 교육과정에 활용(Jang et al., 2007; Jang et al., 2011)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 서비스 산업은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의식주, 자녀 양육, 고령자의 간호 및 돌봄, 관광, 미용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생활 서비스 산업은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산업이다(Jang et al., 2011; Jang et al., 2014a).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성별 경제 활동의 변화, 세대 구성의 변화, 통신 기술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의 변화로 이어지며, 산업 구조와 직업 세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생활서비스 산업은 미래 사회 변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 융합, 쇠퇴 등과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Jang et al., 2014a).

향후 2020년대의 산업 발전, 이와 관련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한 연구 결과(Kim, 2012)에서는 미래 산업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적용할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과 직업 세계의 메가트렌드는 생활에 대한 변화의 요소를 반영한 것이며, 산업과 연계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이에 따른 우리 생활 변화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심화되는 환경·에너지 자원 문제와 산업·직업의 녹색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가속화에 따른 유비쿼터스와 홈오토메이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고용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 건강 관리 등의 돌봄 산업의 수준 향상, 일과 삶, 그리고 여가의 균형, 일상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 증대 등이 미래의 가정생활과 생활 서비스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Source: Kim, H. J.(2012). 10 years after promising career with 8 megatrend analysis of the world of vocatio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team of industrial vision 2020(2005). Korea's advanced industrial vision 2020(1) total.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As reconstruction by researcher.

Figure 1.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8 megatrend in vocation world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미래 기술 혁신의 주체는 기술이 아닌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열망에 의해 삶의 모습이 디자인되고 기술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미래 기술혁신의 중심은 가정이며, 가전기기와 통합 플랫폼을 통한 통합 앱 관리 등 맞춤형 스마트홈 등 소비자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인간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Yoon, 2014).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의식주, 자녀 양육, 고령자의 간호 및 돌봄, 관광, 미용 등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자동화, 직업의 세분화, 전문화뿐만 아니라 인력의 수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 2.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 분석

현행 교육과정에서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 운영 현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통계(Ok et al., 2010)와 2013년, 2014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KEDI, each year)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전국 470개 특성화 고등학교 중 가사·실업계열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의 9.4%(44개교)로 공업계열,

상업계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가사·실업계열 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까지 당시 전체 실업계고교의 전체 1%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8년 이후 상업계고교에 가사·실업계열 과정 개설 정책도입,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등에 맞물려 2000년 이후에는 평균 9%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사·실업계열 기준학과의 운영 현황으로 살펴보면, 가사·실업, 공업, 농업, 상업, 종합계열 등 다양한 계열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종합고가 일반고에 포함되어 분류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사·실업계열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학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가사·실업계열 기준학과별 개설 학과명, 학과별 학급수, 학생수,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 기준학과는 137개 개설 학과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광과(47개), 조리과(22개), 간호과(20개), 미용과(20개), 의상과(11개), 실내 디자인과(7개), 복지 서비스과(6개), 유아 교육과(4개) 순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개설 학과 현황(Jang et al., 2011)과 비교해보면 관광과 16개, 조리과 12개, 간호과 2개, 미용과 13개, 의상과 6개, 실내 디자인과 6개, 복지 서비스과 3개, 유아 교육과는 기준학과 그대로 운영되었던 현황에 비하면 평균 2배 이상의 다양한 학과 개설 운영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전공별 특성은 관광과는 직종별 세분화는 물론 의료·컨벤션 등과

Table 3. Yearly rate in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단위: 개수(%)

Year		2000	2005	2010	2012**	2013**
특성 학교	농업고	26(3.4)	31(4.3)	30(4.3)	37(7.8)	34(7.2)
	공업고	203(26.6)	212(29.7)	212(30.6)	202(42.5)	198(42.1)
	상업고	238(31.2)	212(29.7)	190(27.5)	186(39.2)	185(39.4)
	수해고	8(1.0)	8(1.1)	7(1.0)	8(1.7)	9(1.9)
	가사고	75(9.8)	64(9.0)	64(9.2)	42(8.8)	44(9.4)
	종합고	214(28.0)	186(26.1)	189(27.3)	-	-
	소계	764(100)	713(100)	692(100)	475(100)	470(100)
일반계고		1,193	1,382	1,561	1,565	1,525

Source: KEDI(each year).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 비율(%) = 학교별/소계\*100(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2012년과 2013년의 교육통계연보에는 5개 계열별 특성화고 수만 제시되고, 종합고 수는 제시되지 않아 종합고 수를 제외한 특성화고 수치만을 제시하였음

연계를, 조리과의 경우 음식별 세분화와 미용·마케팅과의 연계 경향을, 의상과는 섬유 디자인과의 연계 경향을 볼 수 있다. 간호과는 의료복지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미용은 세부 분야별 특성화를 복지과는 실버 등 대상별 비즈니스와의 연계 경향이 주요 특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Jang et al., 2011) 에서 제시한대로 자격과의 연계가 미흡한 유아 교육과, 복지 서비스과의 경우 유아교육에서 보육으로의 전환 노력과 복지서비스 분야 일자리와의 연계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개 기준학과의 총 운영 학급은 1,446개이며, 학급당 평균 28명 수준이었다. 기준학과별 학급규모는 관광과(477개), 조리과(288개), 간호과(265개), 미용과(160개), 실내디

자인과(92개), 의상과(91개), 복지서비스(44개), 유아교육과(29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의 진로현황은 기준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취업률은 44.7%로 진학률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 전체 취업률 16.9%, 진학률은 75.2%에 비해 큰 변화로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성과로 해석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의 경우도 전체 평균 53.9%로 2010년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46.7%에 비해 약 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선취업-후진학 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노력 등과 연계된 변화로 해석된다.

Table 4. Current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al/vocational high schools' standard departments and present conditions of graduates' vocations.

( ) %

Stan- dard Depart- ment	Department	Number of Classes			Number of Students			Gradua- tes	Selection behavior	Emple- yed	National Techni- cal Quali- fication	Note (2006/ 2010/ 2014)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조리과	관광외식조리과, 관광조리과, 관광조리코디과, 국제조리과, 국제조리과학과, 베이커리와, 생명과학과, 외식마케팅과, 외식산업, 외식산업마케팅과, 외식조리경영과, 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조리과, 조리과학과, 조리디자인과, 푸드스타일링과, 한식조리과, 호텔의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조리과, 조리미용과(조리 및 미용) (22개)	96	101	91	2,877	3,012	2,718	2,660	1,065 (40.0)	1,294 (48.6)	1,321 (49.7)	126/ 209/ 288
의상과	글로벌패션과, 멀티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의상예술과, 의상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패션비즈니스과, 패션섬유디자인과, 패션신소재설계과, 패션제품디자인과 (11개)	29	31	31	838	843	843	871	397 (45.6)	348 (40.0)	622 (71.4)	41/ 59/ 91
실내 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과, 디자인응용건축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7개)	26	32	34	722	876	871	900	330 (36.7)	437 (48.6)	819 (91.0)	24/ 64/ 92
유아 교육과	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과(4개)	6	11	12	187	317	357	394	204 (51.8)	164 (41.6)	157 (39.8)	49/ 46/ 29

Standard Department	Department	Number of Classes			Number of Students			Graduates	Selection behavior	Employ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Note (2006/2010/2014)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관광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경영과, 관광레저과, 관광비즈니스과, 관광서비스과, 관광서비스마케팅과, 관광영어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외식산업과, 관광이벤트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일본어통역과, 관광정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중국어통역과, 관광컨벤션과, 관광항공서비스과, 관광호텔경영과, 관광호텔과, 관광홍보미디어과, 관광홍보이벤트과, 국제관광경영과, 국제관광과, 국제관광비즈니스과, 국제전시경영과, 국제항공서비스과, 글로벌관광과, 레저스포츠과, 레저식품경영과, 문화관광과, 의료관광과, 의료관광외국어과, 컨벤션경영과, 컨벤션관광과, 컨벤션마케팅과, 컨벤션비즈니스과, 컨벤션영어과, 컨벤션이벤트과, 항공관광경영과, 항공비즈니스과, 호텔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호텔비즈니스과, 호텔정보과(47개)	140	166	171	3,964	4,568	4,611	4,578	2,008 (43.9)	1,861 (40.7)	2,264 (49.5)	280/385/477
간호과	간호경영과, 간호과, 간호복지학과, 간호행정과, 보건간호과, 보건경영과, 보건비즈니스과, 보건의료복지과, 보건코디네이터과, 보건행정과, 유헬스간호과, 유헬스미디어과, 유헬스시스템과, 의료디자인과, 의료사무관리과, 의료서비스과, 의료영상미디어과, 의료행정과, 치의보건간호과. 한방보건간호과(20개)	83	91	91	2,238	2,437	2,485	2,032	1,012 (49.8)	827 (40.7)	911 (44.8)	17/86/265
복지서비스과	복지경영과, 복지비즈니스과, 복지서비스과, 비즈니스복지과, 사회복지사무관리과, 실버케어복지과(6개)	13	15	16	367	409	406	262	114 (43.5)	93 (35.5)	116 (44.3)	신설/32/44
미용과	국제뷰티아트과, 글로벌뷰티경영과, 미용건강과, 미용과, 미용과학과, 미용디자인과, 미용마케팅과, 미용예술과, 바이오뷰티산업과, 뷰티과, 뷰티디자인과, 뷰티미용과, 뷰티케어과, 토탈미용과, 토탈뷰티과, 피부미용과, 피부케어과, 헤어디자인과, 헤어미용과(20개)	56	53	51	1,663	1,497	1,350	1,307	322 (24.6)	783 (59.9)	796 (60.9)	64/126/160
계(8개 기준학과, 137개 개설학과)		1,446			40,456			13,004	5,452 (41.9)	5,807 (44.7)	7,006 (53.9)	-

Source: KEDI(each year).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100

\* 진학률(%) = 진학희망자수/졸업자수×100

\* 취득률(%) = 기술자격취득자/졸업자수×100

\*\* 교육통계연보(2014)에는 학과별 학생수, 학급수만 제시, 학교수는 제시되지 않음

### 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정계 직업교육 방향

####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개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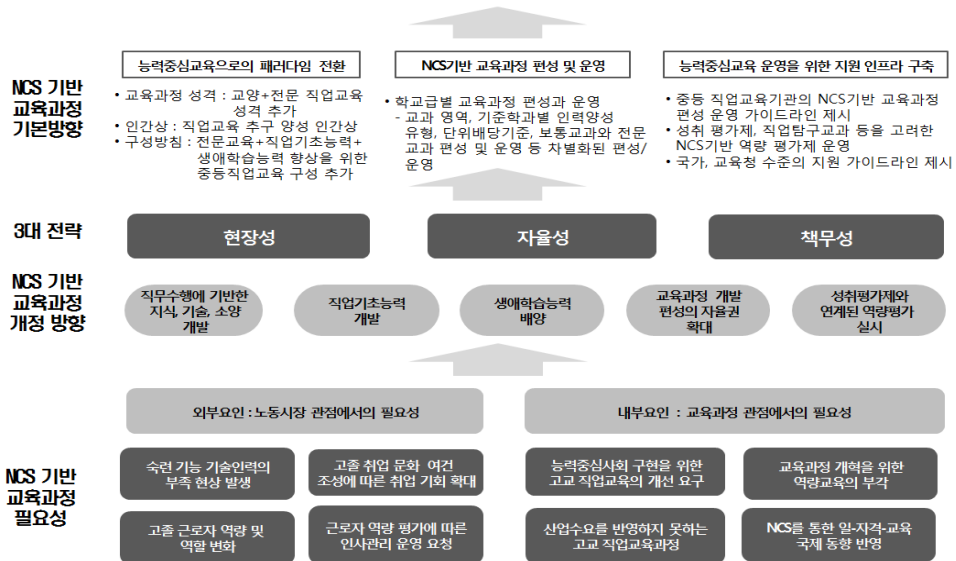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가 괴리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지나친 신입사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자는 스펙쌓기에 몰입하는 등 많은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KCCI, 2012).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도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도출한 일종의 ‘직무수행 명세서’로 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나라 모든 직종(11,655개)에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제

시하기 위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유사 직종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교육부가 2014년 9월까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연구(Jang et al., 2014c)’는 학생들이 끼를 찾고 꿈을 실현하는 능력 중심 직업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NCS 기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 기관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효율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배경 및 비전 그리고 추진 전략과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은 <Figure 2>와 같다.

### 끼를 찾고 꿈을 실현하는 능력 중심 직업교육 구현



Source: Jang et al.(2014c). NCS based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gure 2. Vision and background of renovation NCS-based vocational highschoo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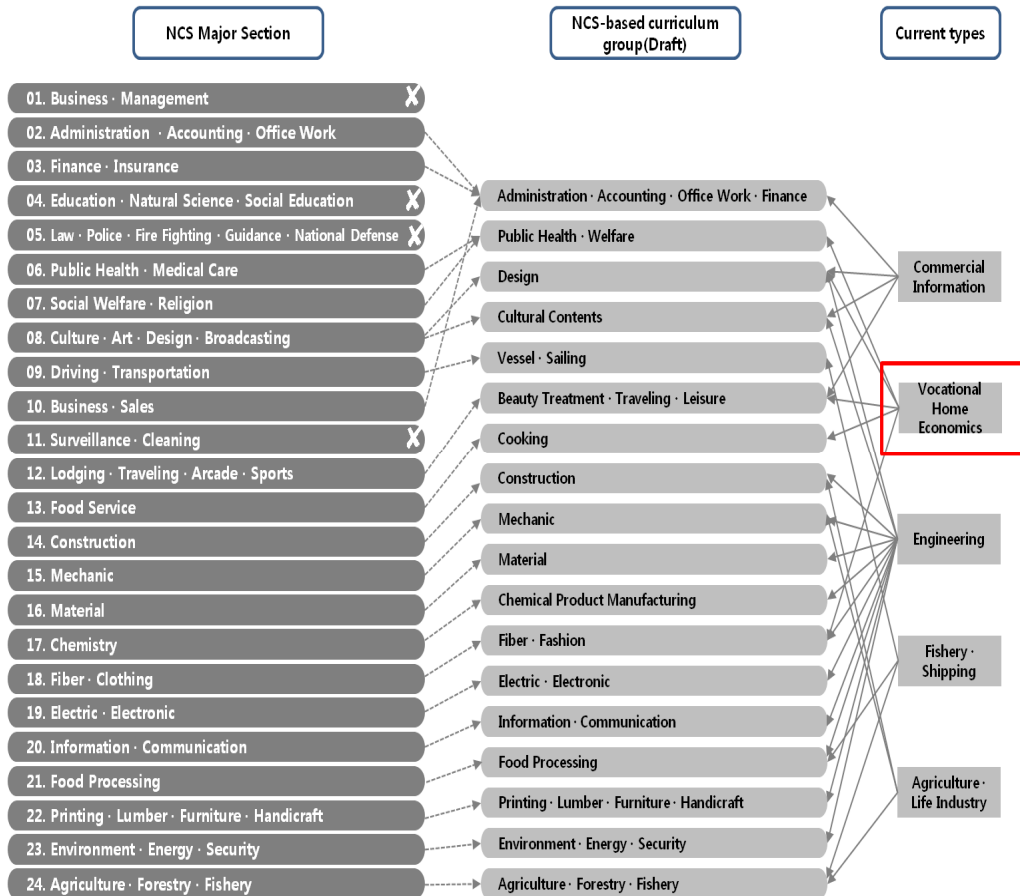
1) Jang et al.(2014c)의 연구 자료 일부를 인용 재구성하였음.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가정계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

앞서 생활서비스 산업으로 제시한 가사·실업계열 직업 세계는 각 분야마다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향후 고용은 다소나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또는 민간자격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과정이 정비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학이 증가하면서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의 체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Jang et al., 2011). 따라서 가사·실업계열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산업 및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격과의 연계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토대로 이후 가사·실업계열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될 것이며,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현행 가사·실업계열은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 선정과 그에 걸맞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Kim et al., 2011)에 따라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시기까지 계열 재구조화를 검토해 왔으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에서는 <Figure 3>과 같이 계열 및 기준학과 재구조화(안)을



Source: Jang et al.(2014c). NCS based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gure 3. Proposals for restructuring division classification Of NCS based vocational highschool education curriculum

개발·제시하였다. 이 안은 고졸 인력구조의 특성을 토대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을 위해 NCS 24개 대분류를 활용하여 현행 5개 계열 구분을 18개의 교과군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기준학과는 NCS 중분류 77개 중 고교 직업교육 역할이 약한 분야를 제외 한 65개 중분류를 토대로 재구조화(현행 62개 기준학과 → 44개 기준학과로 개선 제시)하였다. 각 기준학과들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일자리)와 직무를 기반 한 기준학과별 취득 가능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안)’을 제시하였다(Jang et al., 2014c).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의 가사·실업계열(가사·실업에 관한 교과)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보건·복지, 디자인,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섬유·의복 등 5개 교과군으로 분리 재구조화될 예정이다(<Figure 3> 참조). <Table 5>의 기준학과(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8개 기준학과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기준학과 명칭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해당 중분류 명칭을 준용하였으므로 간호과→보건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사회 복지과, 유아 교육과

→보육과, 실내 디자인과→디자인과, 미용과→이·미용과, 관광과→관광·레저과, 조리과→조리·식음료과, 의상과→의류과(의류제작과)로 보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교육부가 2015년 8월까지 추진할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현행 미용과는 이용분야까지 확대 여부 검토, 그 동안 자격취득과의 연계가 미흡했던 유아 교육과, 복지 서비스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고용직업 분류와 일치도를 높이고 자격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구조화된 가사·실업계열의 기준학과들과 연계된 직업세계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정생활이 연계되는 접점에서 가사 노동이 사회화된 대표적인 직업분야 이면서도 생활에 대한 여유,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수행 업무의 범위와 전문성에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분야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의 관점에서는 인력 수요가 계속될 분야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과 주기적인 개편 등에 따라 직무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해 길러야 하는 역량들은 개인의 생애에 걸친 삶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으며, 가정, 사회의

Table 5. Manpower training types(proposal) in rela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s training

Department	Standard department	Manpower training policies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간호 조무사, 응급 구조사, 요양 보호사 등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등
	Department of nursery care	어린이집 교사 등
Design	Department of design	제품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Beauty·Tourism·Leisure	Department of Barbers·Beauticians	분장사,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용사, 애완동물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Department of Tourism·Leisure	시설 및 견학안내원, 파티 플래너, 행사기획자,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등
Food technology	Department of cooking·food and beverage	바리스타, 바텐더(조주사), 주방장 및 조리사(양식, 일식, 중식, 한식) 등
Textiles and Clothing	Clothing (Clothing production)	세탁원, 모피 및 가죽의복 제조원, 양장 및 양복 제조원,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의복제품 검사원, 재단사, 재봉사, 패턴사, 한복 제조원, 패션 코디네이터 등

Source: Park et al.(2012). Reforming School Departm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reconstruction by researcher.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도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개발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영역이다.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가사·실업계 전문교과를 편성 운영한 사례 등은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입증하는 예이기도 하다(Kim, Paik, & Ok, 2009). 따라서 가정교육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교육의 목적과 범위, 내용 등에서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도입 예정인 NCS 기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실제적인 학교교육은 각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표준화된 현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따라 체험, 실습 중심의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까지 추진될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5개 교과군으로 재구조화된 가사·실업계별 교육과정의 시안 개발과 더불어 일터 기반 직업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를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정책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안의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산업으로 ‘생활 서비스 산업’을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 자녀 양육, 고령자의 간호 및 돌봄,

관광, 미용 등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해 왔다.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요 환경 변화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성별 경제 활동의 변화, 세대 구성의 변화, 통신 기술의 변화, 생활 기술의 혁신 등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생활 기술 혁신은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자동화, 직업의 세분화, 전문화뿐만 아니라 인력의 수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등이 예고되었다.

둘째,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을 2013, 2014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가사·실업계 열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의 9.4%에 달했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 이전의 1% 미만에 머물렀던 현황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등에 맞물려 평균 9%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가사·실업계별 기준학과별 개설 현황과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 기준학과는 137개 개설 학과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광과(47개), 조리과(22개), 간호과(20개), 미용과(20개), 의상과(11개), 실내디자인과(7개), 복지 서비스과(6개), 유아교육과(4개) 순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Jang et al., 2011)와 비교할 때 세부 분야별 전문화, 특성화 및 연계 전공 개설 등으로 평균 2배 이상의 다양한 학과 개설 운영 경향을 나타냈다. 가사·실업계 열 고등학교의 진로현황은 기준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취업률은 44.7%로 진학률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전체취업률 16.9%, 진학률 75.2%)에 비해 큰 변화이다. 이는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정책의 추진 성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만 선행연구(Jang et al., 2011; Lee et al., 2012)에서 지적된 직업교육과정이 한계와 쟁점 그리고 내실화 측면에서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정계 직업교육의 방향에서는 현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 배경, 개정의 방향과 중점 사항을 고찰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사·실업계열의 주요 변화는 그 동안

현재와 미래의 산업 및 직업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계열 명칭으로의 재구조화 필요성 제기(Kim et al., 2011)에도 불구하고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추진하지 못한 계열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다. 재구조화(안)은 고졸 인력구조의 특성을 토대로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을 위해 NCS 24개 대분류를 활용하여 현행 5개 계열 구분을 18개의 교과군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Jang et al., 2014c), 가사·실업계열(가사·실업에 관한 교과)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보건·복지, 디자인,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섬유·의복 등 5개 교과군으로 분리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기준학과(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8개 기준학과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기준학과 명칭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해당 중분류 명칭을 준용하였으므로 후속적으로 추진될 교과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자격과의 연계, 범위의 확대, 직업분류와의 일치도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8월까지 추진될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5개 교과군으로 재구조화된 가사·실업계열 교육과정의 시안 개발과 함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연구 결과(Jang et al., 2014c)를 활용하고, 가사·실업계 교육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한 기초 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산업계와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과 요구 조사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을 가진다. 이상의 결론과 연구의 제한점 등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NCS 기반 고교 가사·실업계 교과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과 산업 및 직업전망, 자격 체제 등의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 계열 재구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력양성과 고용분류의 정합성은 높아졌으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과 연계된 가사·실업계열 즉 생활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가사·실업계열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인간발달’, ‘생활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의 과목 개설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정계 직업교육으로서의 체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일터 기반 직업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교과 교사의 확보와 현직 교원들의 산업체 현장 체험 및 연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가사·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많은 비율이 현직 부전공 연수 자격소지자임을 고려할 때 가정교육과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통해 관련 전문교과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교사자격 제도 및 양성과정의 개편, 산업체 인사의 활용 활성화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교육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정교육에서 직업교육은 교육과정 전(全) 시기 동안 뚜렷한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학생들에게 길러 줄 역량을 고려할 때 가정교육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교육의 목적과 범위, 내용 등에서 상호 관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부족했던 가정교육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교사와 학생 모두 사회·경제의 변화와 산업과 직업, 고용시장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George, H. C. (1992). A Framework of the Subject Matter of Vocational Education.
- Interagency (2013.6.4.) The roadmap of 70% employment rate, “Era of national happiness where anyone can work”
- Jung, Y. K. et al., (2012). Curricular integration vocational



- education guidance pla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ung, Y. K. et al., (2010). Constru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management model in relation to educational curriculum (II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Jung, J, Y. et al., (2013). investigation of implications in teacher policy following future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2013 Education Policy Network Education Field Support.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e·Ewha Womans University.
- Jang, M. H., Kim, S. T., Park, Y. H. & Choi, D. S. (2010). Investigations of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Jang, M. H., Byun, S. Y., & Yoon, I. K. (2011). 2011 Development of Vocational Schools nationwide and tentative and unemployment lines and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for the revision to the process of the lyrics Meiste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Jang, M. H., Park, D. Y., & Choi, D. S. (2013). Fixation of the High School employment cultur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researc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ang, M. H. et al. (2007). Studies on developing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for specialized subject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vocational high school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Jang, M. H. et al., (2012).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and worked school activation policy of analysis and researc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Jang, M. H. et al., (2014a). Understanding of life services industry. 2009 Curriculum Revision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acknowledged library. the home-economics-specialized vocational highschool admission 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ang, M. H. et al., (2014b). Development directions for NCS based voc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for the realization of ability-centered society. the fourth National Curriculum Forum.
- Jang, M. H. et al., (2014c). NCS based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Ju, I. J., Park, D. Y., & Jin, M. S. (2011). Research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vocational basic ability a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KEDI (each year).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KRIVET (1999).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Dictiona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CCI (2012). Survey of companies' changes in the recognition
- Kim, K. A. et al., (1997). The 7th professional home-based school curriculum revision particulars researc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M. S., Paik, S. J. & Ok, J. P. (2009). A study on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lternative schoo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Kim, S. T. et al., (2011). Research of restructuring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and adapting educational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Kim, H. J. (2012). 10 years after promising career with 8 mega trend analysis of the world of vocation. Korea

-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Lee, Y. S. et al., (2012). Studies on developing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o enforced specializd education in specialized high school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Forum - the 1<sup>st</sup> specialist debate (2013). Vision for national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curriculum
- Mark, P. & Gert, B. (2013). Reinventing the Curriculum: New Trends in Curriculum Policy and Practice. Bloombury Academic.
- OECD (2012). Korea Economic Report of the OECD.
- Park, D. Y., Park, Y. H., Lee, B. W., & Kim, J. M. (2010). Research of measures to promote the system reform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Roadmap).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Park, D. Y. et al., (2012). Reforming School Departm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ark, Y. H. et al., (2011). Review of Current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U.S., Japan, UK, Finland, and Sweden. The journal of Vocation Education Research, 30(2), 1-33.
- Presidential consultation educational innovation committee (2007). Visions and strategies of future
- Research team of industrial vision 2020 (2005). Korea's advanced industrial vision 2020(1) total.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Rychen, D. & S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5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major - integrated educational curriculum outline(key factors)
- Yoon, I. K. et al., (1992). Analysis of the Sixth Curriculum in Vocational High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Yoon, B. K. (2014). Bringing your future home. International Funkausstellung, Germany(IFA) keynote address.
- 文部科學省 (2011). 高等學校用 生活 産業 基礎. (株)實教出版.

####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가정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기반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가정계 직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환경 변화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성별 경제 활동의 변화, 세대 구성의 변화, 통신 기술의 변화, 생활 기술의 혁신 등으로 집중되었다. 이들 변화 요인은 관련 산업의 혁신과 생활의 변화, 인력의 수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가정계 직업교육 운영 현황 분석 결과, 2013년 현재 가사실업계열 학교는 전체 특성화고의 9.4%를 차지했으며, 8개 기준학과가 분야별 전문화, 특성화 및 연계 등을 통해 137개의 개설 학과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기준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취업률은 44.7%로 진학률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전체취업률 16.9%, 진학률 75.2%)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로 이는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으로의 정책 변화가 가져온 성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정계 직업교육의 방향에서는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 배경, 개정의 방향과 중점 사항을 고찰하고 가사실업계열의 계열 재구조화(안)과 기준학과 개편(안), 후속 연구에서의 전체 사항을 제시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2월 01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27일